

# 왜 ‘정보’인가

안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서양고전문헌학 전공  
numerus@snu.ac.kr

- I. 머리말
- II. 정보 사업의 필요성: 서양고전문헌학을 사례로
- III. 정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 IV. 정보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서양의 사례를 중심으로
- V. 맺음말

『춘향전』 자료를 제공해주신 경희대 고전문학연구팀의 김진영, 김동건, 최운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돈황 자료들을 보내준 서울대 협동과정 서양고전학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곽문석 선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철학과의 김남두 선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글의 상당 부분이 김남두 선생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 I. 머리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내년도 학술 사업으로 “한국학 고전 텍스트 정보 사업”을 기획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 기획은 “10년 150권 정도의 고전 텍스트에 대한 판본을 수집하고 판본을 비교하며, 표점을 찍는 텍스트 비평을 거쳐 정보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10년 150권을 정보 작업하는 일은, 사실 앞으로 진행될 작업의 규모에 비추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논의를 거치면서 실현 가능한 연구 기획이 마련되리라 믿는다. 아무쪼록 이 기획이 제대로 착수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보 작업이 이루어져 한국 인문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미약하지만, 이 글이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① 정보 사업의 필요성, ② 정보 사업의 시급성, ③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 II. 정보 사업의 필요성: 서양고전문헌학을 사례로

모든 텍스트는 소통을 위해 태어난다. 그리고 텍스트는 대개 문헌을 통해 전송된다. 이 문헌은 언어로 기록되는 매체다. 하지만 언어는 변한다. 언어의 이런 속성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텍스트 내용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일례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들 수 있다. 『일리아스』는 원래 이오니아 지방의 방언으로 불려진 서사시다. 요컨대 서사시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된 후 대략 400년이 지난 기원전 3세기에 이르면, 『일리아스』는 최초의 원전에서 많이 벗어나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원전이라 할 수 없는 내용도 많이 삽입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리아스』 제2권 선박 목록 대목이다. 이는 트로이 원정에 참여했던 그리스 군대들이 어느 지방에서 온 부대인지를 소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원래 선박 목록에는 도시 아테네의 이름은 원래 없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아테네는 이름도 없는 어느 해안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에 아테네가 당시 강대해 지자,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도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기록을

『일리아스』에 삽입하게 된다. 이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가 선박 목록에 삽입된다. 하지만 호메로스 서사시는 아테네 버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지방에도 전해지는데, 아테네의 참전 이야기는 후대에 삽입된 위문으로 훗날 학자들에 의해 판명된다. 이와 관련된 여담인데, 어려서 들은 실화다. 박동진 명창이 우리 고향을 방문해서 <홍부가>를 불러주었다. 흥미롭게도 홍부가 박을 타고 나서 밥을 너무 먹고 배탈이 난 대목이었다. 그는 홍부가 그만 설사를 하는데, 설사 줄기가 지리산에서 무등산에 걸쳐 무지개를 그릴 정도였다고 하면서, 그 무지개가 우리 동네를 지난다고 노래했다. 원래 우리 동네는 <홍부가>가 탄생한 동네와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했다. 따라서 우리 동네의 이름이 <홍부가>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기에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그때 들었던 <홍부가>가 원래 <홍부가>인지를 말이다. 만약 박 명창이 18세기 남원 사투리로 된 노래를 불렀다면, 아무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 명창이 부른 <홍부가>는 이미 원전에서 많이 달라진 노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소개한 <홍부가>에는 호메로스의 경우처럼 이미 원래 텍스트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고전의 경우, 이에 대해서 다른 이해와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대목인데,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하나의 참조 사례로 들어주었으면 한다. 요컨대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서양 고전문헌학자들은 일단 원전과 원전이 아닌 것들을 구분한다. 다음으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전승된 표현을 존중한다. 이해되지 않는 낯선 표현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승된 표현을 일단은 존중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서 해결한다. 서양 고전문헌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본 작업을 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우선 서양 사람들이 소위 ‘원본’이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정본’ 개념을 상정한다는 것은, 후대의 문헌학자가 만든 ‘정본’이 원본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비판정본(editio critic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판’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정본과 원본 사이에

있는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어찌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대의 문헌학자들이 만든 본문이 원저자가 쓴 원문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가 ‘비판’이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다.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키케로, 『연설가에 대하여』 제1권 32장

[32] Quid tam porro regium, tam liberale, tam munificum, quam opem ferre supplicibus, excitare adflictos, dare salutem, liberare periculis, retinere homines in civitate? Quid autem tam necessarium, quam tenere semper arma, quibus vel tectus ipse esse possis vel provocare improbos vel te ulcisci lacessitus? Age vero, ne semper forum, subsellia, rostra curiamque meditare, quid esse potest in otio aut iucundius aut magis proprium humanitatis, quam sermo facetus ac nulla in re rudis? Hoc enim uno praestamus vel maxime feris, quod conloquimur inter nos et quod exprimere dicendo sensa possumus.

---

ad cap. 32-34 cf. *De inv.* 1,2-5, *Isocr. or.* 3,5-8;15, 253-7; 4,48 quibus vel ... improbos cf. cap.202; 2,35, *De leg.*1,62

---

improbos L (cf. *Div. in caec.* 70), del. Bake: integros M Tittler: integer Vassis 32: integer reos Deiter: iniquos Stangl: infestus Meusel: integer improbos Mueller

다음으로, 서양 고전문헌학자들은 전승된 표현을 바탕으로 원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다. 이를 위한 실천 방식이 판본 비교다. 라틴어로는 *collatio*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판본 비교를 하는 이유는 비판정본을 편집하다 보면 개별 단어 선택과 문장 교정을 해나가면서 최고본(最古本)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후대본(後代本)에서 더 나은 제안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비로소 소위 ‘대가’들의 해석과 권위에 의지한다. 물론 이도 사변적인 추정이 아니라 나름 설득력 있는 논증과 유사 전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양고전문헌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전하는 매체의 물질적인 속성을 중시하고 역사적인 전통을 중시한다는 게 하나의 학문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문

전통 때문에 서양 학자들은 소위 ‘대가’라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문헌 전승을 중시한다. 어떤 텍스트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텍스트가 위문으로 판명될 경우, 이보다 난감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사변적인 추정이 아닌 문헌 전승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음의 사례가 보여준다.

때는 바야흐로 비잔틴 제국이 몰락(1453년 멸망)하던 시기였다. 이를 직감한 콘스탄티노플의 신부 베사리온(Bessarion)은 두루마리 약 800본 분량의 그리스 필사본을 베니스로 가지고 들어온다. 시기는 1427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필사본이 한꺼번에 서유럽으로 유입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신약성경』 필사본도 포함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단이 벌어진 것은 대략 1448년 즈음이었다.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논쟁이 베니스에서 벌어졌다. 논쟁은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347-420)의 라틴어 성경 번역의 문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지우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벌어진 다툼이었다. 해당 구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dicit ei Iesus si sic eum volo manere donec veniam quid ad te tu me sequere(Ad Johannem 21.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한복음』 21장 22절).

문제의 구절은 밑줄 친 *si sic*이었다. 참고로 *si*는 영어의 *if*이고, *sic*은 *thus*를 뜻한다. 어쨌든 하나는 지워야 하는데, 뒤에 나오는 *sic*을 원문에서 지워야 한다는 주장과 주어진 전통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섰다. 후자의 입장을 고집한 쪽이 가톨릭 신부들이고, 전자를 주장한 이가 로렌초 발라(Lorenzo Valla, 1407-1457)라는 서양 고전문헌학자였다. 각설하고, 논쟁은 발라의 승리로 끝난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성경은 *ἐάν*(*if*)로 되어 있었다. 물론 나중에 *si*만 기록된 다른 라틴어 필사본이 발견되었다. 발라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하느님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문법에는 맞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다. 또한 이런 확신의 배경에는 필사본이 있었다. 예컨대 1516년에 에라스무스(Erasmus)는 그리스어 『신약성경』

을 편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일은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아주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라스무스에게 용기와 독심을 제공한 결정적인 힘은 『신약성경』을 전하는 그리스어 필사본이었다. 에라스무스가 『신약성경』을 편집해서 출판한 해는 1516년이다. 출판과 함께 그는 많은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고,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출판은 역사적 패배로 종결되지 않았다. 루터(M. Luther, 1483-1546)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의 『신약성경』을 저본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터의 성경 번역은 주지하다시피 서양 근세를 여는 전주곡이었다. 이는 종교개혁으로, 이어 시민혁명, 나아가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역사의 거대한 전환이 아주 사소한 표현 하나에서 비롯된 셈이다. 따라서 결코 사소한 표현 문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본 비교를 통해서 정본을 만드는 것은 문헌 자체에 대한 이해와 문헌을 단지 잘 보존하기 위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헌을 당대의 텍스트로 복원하여 그것을 안전하게 연구자들과 다른 일반 독자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획하는 “정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해서 성공한다면, 이는 우리 인문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 III. 정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여기서부터는 나의 분수를 넘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정보 사업이 시급한 이유를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사례 하나: 『춘향전』 시작 대목

##### 1) 몽룡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춘향전』 계열

ID: 남원고사(南原古詞)

P#0010#(1-앞)던하명산 오악지중에 형산이 높고 높다 당시절의 절문 이 경문이 능통흐므로 [...] 이 세상의 밋오 이상흐고 신통흐고 거록흐고

괴특하고 꺾려하고 땡냥흔 일이 잇겠다

P#0030#전라도 남원부스 니등스또 도입시의 즈제 니도령이 년광이 십륙세라 얼굴은 던유즈오 풍치는 두목지라 문당은 니태빅이오 필법은 왕희지라

ID: 동양문고본 춘향전

P#0010#〈1-앞〉던하명산 오악지중의 형산이 높고 높다 당시의 절문 중이 경문이 능통키로 [...] 잇 썩의 믹오 이상하고 신통하고 기록하고 괴특하고 꺾려하고 땡냥흔 일이 잇겠다 한 노리로 긴 밤 식라 니 문자는 그만두고 말명 하나 청히리라

P#0030#전라도 남원부스 니등 사도 도입시의 샷도 즈데 니도령이 년광이 십륙세라 녀동빈의 얼굴이오 두목지 풍치로다 문장은 니빅이오 필법은 왕희지라

ID: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59장본 춘향전

P#0030#덕검지가라 자제 흔 분 두어씨되 그 얼굴언 영파노탁의 호지이 정노하고 그 문장은 장구필마의 담열청빙하던 땡호연과 방불하던 게엇자

ID: 신문관본 활자본 고본 춘향전

P#0030#전라도(全羅道) 남원부스(南原府使) 리등스도(李等使道) 도입시(到任時)에 스도즈데(使道子弟) 도령(道令)님이 년광(年光)이 십륙세(十六歲)라 김부식(金富軾)의 얼〈6〉골리오 리덕형(李德馨)의 풍신(風神)이라 문장(文章)은 최고운(崔孤雲)이오 필법(筆法)은 김생(金生)이라

## 2) 춘향의 탄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춘향전』 계열

ID: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35장본 춘향전

P#0010#〈1-앞〉절디가인 싱길적의 강산정괴 타서난다 저라산 이야게 의 서씨가 종출하고 군산만학 부형문의 왕쇼군이 싱장하고 쌍각산이 슈려하여 녹쥬가 싱겨시며 금강유리아미슈의 설도 환출하여편이 호남좌도 남원부난 동으로 지리산 서으로 적성강 산슈정신 얼의여서 춘향이가 싱겨구나

ID: 김동욱 소장 49장본 춘향전

P#0010#〈1-앞〉…… 전라 남원부 일등 명기 월미란 사람이 잇난디  
성등니 슈청 썩 춘향을 나은고로 성춘향이라 히거다 그시에 남원부사로  
잇닌 양반이 동촌 리씨인디 일남자를 두신비 남중일식 호걸이요 룡몽을  
어더 나은고로 일흠을 몽룡이엿다 월미 쌀 성춘향과 이몽룡과 천년을  
믹진 근본이엿다

ID: 보급서관본 활자본 옥중화

P#0010#〈1〉絶對佳人(절대가인) 삼겨날 제 江山精氣(강산정기) 타셔난  
덕 […] 雙角山(쌍각산)이 秀麗(수려)하야 綠珠(록주)가 삼겠스며 […] 南原  
府(남원부)는 東(동)으로 智異山(지이산), 西(서)으로 赤城江(적성강) 山水  
精神(산수정신) 어리어서 春香(춘향)이가 삼겨있다

### 3) 판소리 계열 『춘향가』

ID: 신재효 동창 춘향가(가람본)

P#0020#잇썩의 三清洞 李進士가 忠勳의 后裔시오 […] 南原府使 ㅎ엿우  
나 到臨 ㅎ신 一朔內의 거리거리 木碑로다 골목골목 頌德이라

ID: 김소희 창본 『춘향가』

P#0010#〈아니리〉영웅열사(英雄烈士)와 절대가인(絶代佳人)이 삼겨날  
제 […] 우리나라 호남좌도 남원부(南原府)난 동(東)으로 지리산(智異山),  
서(西)으로 적성강(赤城江) 산수정기 어리어서 춘향(春香)이가 생겼것다.  
숙종대왕(肅宗大王) 직위 초(卽位初)에……

인용은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정리해본 『춘향전』 판본들이다.  
애써 모은 자료를 선뜻 제공해준 경희대 고전문학연구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팀에서 최 박사를 통해 보내준 판본의 수는 105개다.  
이것으로만 볼 때에도 『춘향전』의 판본은 족히 이 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이쯤 되면, 서양 고전문헌학자라면 당장 이런 물음부터 던지려  
들 것이다. 도대체 이 판본들 가운데에서 『춘향전』의 원본 아니 표준  
정본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춘향전』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할 때에  
어떤 판본을 정본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니 제목부터가 문제다. 『춘향가』인가 아니면 『춘향전』인가? 주인공은 춘향인가 혹은 몽룡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일까? 시작 부분에 이런 차이는 왜 생겨났을까? 도대체 어느 판본이 가장 오래된 것일까? 어느 판본이 어느 판본의 저본 구실을 한 것일까? 아니면 베끼었을까? 또한 지은이는 누구일까? 아니면 지은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구전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일까? 몽룡의 탄생으로 시작한 판본들 계열에서 포착되는 이야기의 일정한 유사성과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예컨대 ‘왕희지의 필법’에서 ‘김생의 필법’으로 바뀐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컨대 왜 숙종 때가 강조되며(어떤 판본은 인조 때로 시작함), 장녹주가 등장하는 것(“綠珠(녹주)가 삼겉스며”)은 『춘향전』의 탄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시기의 표기 방식은 제대로 어느 시대 표기의 특징일까?

이와 같은 물음들에 대해서, 한국 고전 연구의 전통이 서양고전문헌학 전통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춘향전』을 지금 한글로 옮긴다면, 어느 판본을 선택해야 할까? 아마도 각기 자신이 소장하는 판본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가람본을 표준 정본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당장 시작 부분만 살펴봐도 이전 판본들과 『춘향전』의 이해가 달라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결론적으로, 판본과 판본의 비교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설령 문헌학적인 판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춘향전』에 대한 이해를 외국에 소개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느 판본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판본 연구의 상황이 이와 같다면, 사실 『춘향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적어도 이야기의 시작 대목만 본다면, 주인공이 춘향인지 혹은 몽룡인지도 의심스럽고, 제목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양 고전문헌학자들의 해결 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판본전승조사(recensio)라는 것이 그것이다. 문헌 추적을 통해서 새로운 필사본을 발견하면, 문헌학자들은 그 필사본이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밝혀야(recensio) 한다. 우선 그 필사본이 유일전승판본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전승판본이 복수전승판본이라면, 해당 필사본들을 가능한 한 모두 찾아내어 판본

간의 비교(collatio)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문헌판본들의 관계를 해명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닫힌 관계(closed recensio)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관계(open recensio)이다.

‘닫힌 관계’란 필사본들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문헌계보도를 구성할 수 있는 판본들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는 일차적으로 서지학과 목록학(codicologia)의 도움을 통해서 해명된다. 예컨대 종이의 재질, 제작 방법, 필기 도구의 특성 등은 필사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서가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피지의 경우 지웠다가 새로 기록된 경우도 있어 매체는 더 오래된 것일 수 있으나 필사 시기는 후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길이 바로 문헌의 내적 관독(palaeogrphia)이고, 이를 통해 파악한 오류-유전들 간의 상관성 비교이다. 이 오류들은 필사본 사이의 차이가 왜 생겨났는가를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오류들을 이용해서 닫힌 관계를 보여주는 문헌계보를 세울 수 있다. 문헌계보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소위 유전-오류들이다. 이 오류에 속하는 결정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연 재해로 인해 필사 모본이 많이 망가진 경우, 필사본 자체가 필사 모본의 글씨나 내용을 알아보지 못해 빈칸으로 남겨둔 경우, 필사 모본에는 없는데 아들본에 채워 넣은 경우, 단어나 문장의 교체나 자리 이동을 한 경우가 나타나면 필사본과 필사본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열린 관계’는 문헌 판본들의 전승 전통이 다양해서 친족관계를 따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모든 필사본이 최초의 어떤 한 원전에서 출발했다면, 개별 필사본들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문헌계보도를 분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원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설령 어떤 최초의 원전으로부터 필사된 문헌들이 일정 시기까지 내려오다가 필사과정에서 한 필사본이 잘못 베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잘못 베낀 필사본이 마치 유전처럼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후대 필사본에 전하게 되는데, 이 오류들을 계승-오류(erroses conjunctivi)라 부른다. 이 계승-오류들을 확보하여 문헌계보도가 작성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계승-오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오류들의 종류가 전혀 달라 한 판본이 다른 판본의

모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경우 판본들 사이의 문헌계보도 구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판본이 다른 판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류-근거들을 분리-오류(*errores separativi*)라 부른다. 이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두 줄로 나누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각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의 답안을 연이어 베꼈을 때, 정답일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오답일 경우에는 오답의 유전관계가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줄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경우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은?"이란 질문에, 한 줄의 학생들이 로맹-오맹-텐푸라 계열의 유전정보를 가진 답을 하는 반면, 다른 한 줄의 학생들이 팡세-루소-에 밀이라는 오답들을 썼다면, 양 줄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친족계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헌계보도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열린 관계'라고 부른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소위 '몽룡' 계열 판본들과 '춘향' 계열 판본들을 구분한 방식도 실은 일종의 오류를 응용하는 것이다. 물론 오류는 아니지만, 이야기의 계열이 상호 유전관계를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구문들이 대표적인 유전 계승의 흔적들이다.

“얼굴은 단유조오 풍치는 두목지라 문당은 니태빅이오 필법은 왕희지라”,  
“그 얼굴언 영파노탁의 호지이정노호고 그 문중은 장구필마의 담열청빙헌딘 밍호연과 방불헌딘 게엿싸”,  
“김부식(金富軾)의 열(6) 골리오 리덕형(李德馨)의 풍신(風神)이라 문장(文章)은 최고운(崔孤雲)이오 필법(筆法)은 김생(金生)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 『춘향전』의 경우, 서양고전문헌학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열린 관계'에 속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헌계보도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서양의 경우 필사자들의 잘못된 베껴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은 저자 자신이 최초의 원고를 수정-교정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호메로스 서사시의 경우, 직업 가객들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바꿔 부르는 경우도 있고, 비극의 경우 배우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대사를 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원전부

터 복수 전통의 텍스트 전승이 세워진 경우가 많다. 문헌학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열린 관계라 부른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베르길리우스의 작품, 『신약성경』이다. 널리 읽히고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일수록 문헌계보도 구성이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헌계보는 추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새로이 편집해야 할 때 모든 문헌을 다 고려할 수는 없고 참조-반영해야 할 필사본들을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문헌학자들은 판본최소화(eliminatio) 과정이라 부른다. 반드시 서양식으로 판본을 최소화하거나 문헌계보도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조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판본 비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판본과 판본 사이의 내용적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양식의 비판정본을 굳이 만들 수 없거나 만들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판본 비교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춘향전』 이해와 관련하여 판본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될 새로운 이해와 관점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는 연구자는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춘향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사례 들: 대장경 사례

다음 사례는 7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 돈황 문서들<sup>1)</sup>이다. 먼저, 『서청미시소경일권(序聽迷詩所經一卷)』이라는 문헌을 소개하겠다. 이 문서는 판본 비교 혹은 텍스트 비교가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서청미시소경』은 경교 초기 문서다.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惡業人乃將彌師訶別處。向沐上枋枋處。名爲訖句

1) 이 문헌들은 일본학자 사에키의 견해에 의하면, “序聽迷詩所經은 연대상으로 一神論 두루마리보다 약간 앞선다. 그는 역사적·언어적·신학적 이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世尊布施論 223행에 “메시아 탄생 이래 641년에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이 문서는 641년경에 씌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태종 황제는 네스토리안 선교사 阿羅本에게 그리스도교 경전들을 번역하도록 명하였고, 황제는 경전들을 읽어본 후 경교의 선교를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633년에서 638년 사이에 모종의 문서가 집필되고 한문으로 번역되었을 것이다. 사에키는 序聽迷詩所經이 바로 이 시기에 속한 문서일 것으로 본다.”

악업을 쌓은 이들이 메시아(彌師訶)를 ‘술상방방’이라는 곳으로, 이름하여 ‘골고다 [訖旬]’라고 불리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우선, “彌師訶”와 “訖旬”은 메시아와 골고다의 음역이다. 그리스어 본문이 시리아어와 중앙 아시아를 거쳐 중국어로 음역된 표현으로 보인다. 이 문서에는 沐上枋枋이 나오는데 그 뜻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쨌든 문서 이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표현은 “沐上枋枋”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밝혀져야 본문이 제대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이 『대정신수대장경』 외교부(외래종교) No. 2142에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서청미시소경』 텍스트의 沐上枋枋이 『대정신수대장경』에서는 “沐上枋枋”으로 바뀌어 있다. 전거는 아래와 같다.

卽受死。惡業人乃將彌師訶別處。向沐上枋枋處。名爲訖旬。卽木上縛著。更將兩箇劫道人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당시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이체자(異體字) 연구가 요청되지만, 당장 눈에 띄는 글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沐이 沐으로, 枋이 枋으로 바뀌어 있다. 전자는 沐의 점이 떨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고, 후자는, 才이 木과 비슷하게 보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 것 같다. 또한 “沐上枋枋”이든 “沐上枋枋”이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뜻밖에도 한자 문화권이 아닌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그 해결책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보다 엄밀한 비교 검증은 해보아야 하겠지만 “沐上枋枋”<sup>2)</sup> 이 맞는 표기일 것이다.<sup>3)</sup> 어쨌든 서양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 불가타(Vulgata) 판본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정본으로 알고 있던 『대정신수대장경』도 의심해보아야 할지도 모른다.<sup>4)</sup> 참고로, 정본 작업이

2) 이는 당시 이체자(異體字)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는 문제이다.

3) 이 말은 “땅의 머리”를 뜻하는 소그드어 “Sarbwmb”(사르방브)의 음역일 가능성이 높다. 보다 엄밀한 문헌 비교가 요청된다.

4) 참고로, 『대정신수대장경』은 일본의 사에키가 편집한 것이다. 그런데 판본 전승을 전해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작업된 문헌 편집은 오히려 후속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연구 작업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요즈음 돈황학의 총아로 주목받는 중국인 학자 리탕(Li Tang)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이야기인즉, 다음과 같다. 리탕은 *A Study of the History of Nestorian Christianity and Its Literature in Chinese: Together with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Dunhung Nestorian Documents*(Peter Lang, 2004)를 출판한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Gunner Mikkesen의 서평은 다음과 같다.

그녀(리탕)의 작업에서 결정적이고 명백한 사실은 그녀의 번역이 기본적으로는 사예키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번역이 결정적으로 사예키의 결함이 많은 편집본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또한 원문에 해당하는 필사본이나 출판된 모사본들을 참조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Project Muse 14, Review, 2007, p. 233)

다음으로, 『일신론(一神論)』<sup>5)</sup>이라는 문헌을 소개하겠다. 이 문헌도 판본 비교 혹은 텍스트 비교가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일신론』은 경교 초기 문서다.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는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亦不湏放向自家國土(L356)

인용의 텍스트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글자는 放(보낼 방)이다. 이 글자는 편집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放(보낼 방)이 아니라 改(고칠 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亦不湏放. 向自家國土

- 사예키 요시로우(佐伯好郎), 『景教の研究』(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35), 667쪽.

---

만든다. 그 한 사례가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沐上拏拏’이다. 참고로, 사예키는 “술상방방”을 “그들은 그의 머리를 거기에서 감겼다”로 해석한다(Saeki, P. Y., *The Nestorian Documents and Relics in China*, Tokyo: The Maruzen Co., 1937; 2nd ed., 1951, ‘they washed his hair there). 하지만 이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거의 년센스에 가까운 해석이다. 이는 동방기독교 이동의 맥락에서, 즉 그리스어, 시리아어, 아랍, 페르시아, 소그드어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해골’ 혹은 ‘머리’와 관련된 서역언어의 음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방기독교 문헌에서 그 전거와 어원을 추적해야 한다.

5) 문헌의 성격과 전승상태에 대해서는 황정욱, 『예루살렘에서 長安까지-그리스도교의 唐 전래와 景教 문헌과 유물에 나타난 중국 종교의 영향에 대한 연구』(한신대학교 출판부, 2005), 95-96쪽을 참조하시오.

(2) 亦不須改向自家國土

- 나향림(羅香林), 『唐元二代之景教』(中國學社 1966), 205쪽.

(3) 亦不須改向自家國土

- 학전화(穆尔), 『一五五〇年前的中國基督教史』(郝鎮華譯, 中華書局, 1984), 312쪽.

(4) 亦不須改向 自家國土

- 옹소군(翁紹軍), 『漢語景教文典詮釋』(生活·讀書·新知三連書店, 1996), 152쪽.

(5) 亦不須改. 向自家國土(土)

- 섭지군(聶志軍), 『唐代景教文獻詞語研究』(湖南人民, 2009), 350쪽.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일신론』의 초판본(editio princeps, 1933)을 출판한 사에키는 전승된 텍스트에 따라 문제 자리의 한자를 放으로 제대로 읽었다. 하지만 나향림은 자신의 편집본에서 문제의 자리를 改로 읽는데, 이후 중국에서 나온 텍스트들은 나향림의 독법에 따라 改로 읽는다. 옹소군도 改로 읽는다. 아예 그는 改向을 주석하는 자리에서 再回到(177쪽, 改向: 再回到)라는 설명까지 덧붙인다. 하지만 옹소군의 주석은 학습용 단어 풀이이지 전승 판본의 비판 장치(apparatus criticus)는 아니다. 또한 위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는 섭지군의 텍스트 편집과는 표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적어도 나향림에서부터 옹소군에 이르는 편집자들이 전승 판본을 엄밀하게 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옹소군의 편집본은 상세한 주석을 겸비하고 있어 경교 연구에서 표준본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일신론』의 텍스트는 섭지군의 편집본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섭지군의 텍스트도 엄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문제의 해당 텍스트 자리와 관련하여 그는 전승 판본에 입각해서 텍스트를 放으로 읽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須와 土를 전승 판본에 따라 표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당태종 시절의 이체자(異體字)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섭지군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는 아마도 중국에서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장(儒藏)』 편찬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여러 편집본들 가운데에서 섭지군의 편집

본이 전승된 판본에 가장 가깝게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섭지군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섭지군의 편집본은 아직은 '비판정본'이라 부르는 어렵다. 그동안 앞선 연구자들, 특히 나향림이나 옹소군이 전승 판본을 왜 改로 읽었는지에 대한 일체의 해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학은 틀린 전통, 심지어 명백하고 심각한 오류라 할지라도 이를 기록해주어야 한다. 요컨대, 옹소군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많은 번역들이 출판되었는데, 이 번역들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할 때에도 옹소군이 무엇을 잘못 보았는지는 밝혀주어야 이 오류들이 교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섭지군의 편집본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판 장치를 텍스트 본문에 병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의 시범적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 亦不湏改。向自家國土(土)

(비판 장치)

須(彳) 돈황L356 (傳, 異), 사에키, 섭지군: 須 나향림, 학전화, 옹소군,

放 돈황L356 (傳), 사에키, 섭지군: 改 나향림, 학전화, 옹소군

土 돈황L356 (傳, 異), 섭지군: 土 사에키, 나향림, 학전화, 옹소군

\* 傳 = 傳承, 異 = 異體字

### 3. 사례 셋: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黃海道

黃海道, 居京畿·平安之間. [...] 又北回而止於文化九月山, 卽檀君<sup>6)</sup> 故都. [...] 平山亦有瘡, 然西有綿岳, 東麓有花川洞. 洞有高巖大塚, 諺傳淸人祖墓.<sup>7)</sup> [...] 江東西岸皆挾水築長堤, 內皆水田<sup>8)</sup> 稻一望無際如中原之蘇湖矣. [...] 串下海中, 又產鰻魚·及黑蟲. 黑蟲無骨, 只一塊黑肉如瓜, 而全身肉刺者也. 中原人用以染.<sup>9)</sup> 鰻魚卽漢書王莽所啗者, 登·萊雖有之, 味珍厚, 不及我<sup>10)</sup>, 故採海參時, 並採之, 以利重, 故登·萊船<sup>11)</sup> 歲益增至 頗爲沿海民害. [...] 海州, 爲監司所治. 在首陽之南. 而海水關兩山<sup>12)</sup>間,

6) 『東國山水錄』(규 11638)에는 '氏'로 표현됨.

7) 『東國山水錄』(규 11638)과 송실대본에는 '地'로 표현됨.

8) 송실대본에는 '粳稻'로 표기됨.

9) 『東國山水錄』(규 11638)과 송실대본에는 '緞'으로 표현됨.

10) 『東國山水錄』(규 11638)에는 '我境所產', 광문회본에서는 '我境產', 송실대본에는 '此產'으로 표현됨.

11) 『東國山水錄』(규 11638)과 송실대본에는 '登萊船'으로 표현됨.

於面前山外，爲一大湖，土人謂之小洞庭。潔城實據其勝，頗有臨眺之致。[···] 最爲可居，亦有自漢陽流寓之士族矣。但土瘠易旱，不宜木綿。居人喜以舟楫通江海之利，東通二道<sup>12)</sup>，南通兩湖，貿遷交易，常得奇羨。

이 자료는 서울대 규장각에 근무하는 양진석 선생이 현재 편집 중인 『택리지』의 ‘황해도’ 편의 일부다. 자료를 보내주신 선생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해당 원문은 A4 용지로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이다. 이 정도의 분량임에도 판본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각주 6)의 ‘君과 氏’의 경우에, 저자 이증환은 어떤 글자로 썼을까? 전승 사정에 따르면, 이는 결국 편집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양 선생은 ‘君’을 본문에 택했지만, 주석에 다른 가능성, 즉 ‘氏’를 제공해준다.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양 선생의 편집은 이른바 ‘비판정본’이라 하겠다. 또한 흥미로운 대목은 각주 10) 『東國山水錄』(규 11638)에는 ‘我境所產’, 광문회본에서는 ‘我境產’, 송실대본에는 ‘此產’으로 표현됨이다. 설부르지만 일련의 판본들 사이에 있는 유전관계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광문회본과 『東國山水錄』 사이에는 깊은 유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베끼거나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양 선생은 광문회본이 『東國山水錄』을 저본으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결론적으로, 양 선생의 작업 방식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19세기 서양 고전문헌학자들의 편집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양 선생의 편집본은 판본들을 비교하고, 다양한 판본의 텍스트를 한 자리에 모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한 사실인데, 한편으로 우리에게서도 이미 정보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 작업이 왜 시급하고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양 선생은 스스로 ‘아직은 초기상태’라고 겸손해하지만, 선생의 작업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시해야 할 점은, 비록 우리의 전승 문헌들이라 할지라도 정보 작업은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의 교토 대학과 같은 곳에서 말이다. 요컨대 서양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키케로는

12) 『東國山水錄』(규 11638)과 송실대본에는 ‘山’이 생략되어 있음.

13) 『東國山水錄』(규 11638)과 송실대본에는 ‘都’로 되어 있음.

로마인이다. 하지만 그의 저술들은 이탈리아의 것이 아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나 독일 토이브너(Teubner) 출판사의 텍스트가 더 정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만약 양 선생의 『택리지』와 같은 정본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본 작업이 발달한 일본에서 비판정본을 수입해 다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 또한 정본 작업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IV. 정본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서양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3장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본 사업이 필요하고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정본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본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성공 가능한 사업이다. 이는 구조적인 이유에서 그렇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들을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개별 소장 문고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개인이 나서서 어느 집안에 소장된 문헌들을 열람하려 해도, 자료의 손실 내지 유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판본 비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장한 문헌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명이 날 경우,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 아예 문헌 자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이 지속적으로 작업하기에는 정본 작업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춘향전』의 경우, 판본이 최소한 100종이 넘는다. 어떤 연구자가 판본과 판본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출판한다 해도 이를 통해서 그 연구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본 작업은 장기적으로 연구에 집중했을 때에야 믿을 만한 결과가 산출된다. 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물론 서양에서도 일부 출판사들

은 정보 작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토이브너 출판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출판사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수행할 만한 경제적 규모가 아니다. 대학 출판사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현실 사정을 감안할 때에 정보 사업은 결국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 사업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한국의 인문학은 '수입인문학'이다. 100년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한문 문헌에서 빌려 사용했다. 최근까지도 일본어 문헌에서 가져다 썼고, 요새는 주로 영어 문헌에서 많이 빌려 쓰고 있다. 물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된 문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문헌들이 한국의 현재 지식 시장을 감당할 정도는 아니다. 지식 시장에서 한글 문헌이 차지하고 있는 몫이 아주 작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 인문학이 수입인문학의 지배적인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한국 인문학이 자생인문학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정보 작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전 장악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은 권위자들의 의견을 빌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대개 그 권위자들이 해외에 있다. 동양학의 경우는 일본과 중국, 요즘은 서양에도 많다. 예컨대 앞에서 리탕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돈황학의 주도권은 이미 정보를 장악한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쩌면 얼마 안 있어 한국학의 경우도 구미의 학자들에게 담론의 주도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지금 돈황학이 그렇듯이 말이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독자적인 이론 구성 능력과 관련해서 동양의 인문학자들이 서구의 학자들에 비해서 밀리고 정보 작업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권위자의 의견이 탁월해서 수입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전에 대한 자신감 부족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 학문의 발전과정에서 그 시작은 원전에 대한 해석의 기본적인 주도권을 원천적으로 쥐고 있는 정보 만들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 또한 정보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정보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문헌은 하나의 텍스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판을 통해서 국가의 공동 자산이 된다. 여기에서 국가가 정보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온다. 산업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정보 사업으로부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기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언어 자원이다. 참조 사항으로 『라틴어대사전(*Thesaurus Linguae Latinae*)』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겠다. 단적으로, 이 사전도 정보 작업 덕분에 탄생한 것이다. 판본을 읽다 보면 크게 대체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승과정 중 잘못 표기된 단어들의 처리가 그중 하나다. 잘못 베낀 단어들 중 대부분은 유일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경우(*hapax legomena*)다. 이런 사정 때문에 틀렸다고 함부로 지우거나 교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단어들이 올바르게 표기되어 전해져왔다 해도, 의미 변화로 인해 텍스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는 일상어였는데 특수 전문어로 사용된 경우, 즉 사회 문화사적 변동으로부터 생겨난 의미 변화인 경우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텍스트를 교정하거나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당시의 문헌학자들은 한 단어가 형태적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전을 가지기를 꿈꾸어왔다. 이 꿈이 구체화되어 나온 것이 바로 『라틴어 대사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런 사전이 없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텍스트 자원이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학문의 주도권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다. 대표적으로 1494년 알두스 출판사가 그랬다. 1994년은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학을 주도한 알두스 출판사 건립 5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를 기념하는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프린스턴 대학의 주도 하에 미국에서 열렸다. 미국이 이 행사를 주도한 이유는 새로운 매체의 발견, 즉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도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는 새로운 알두스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함을 선언하는 사건이라 하겠다. 알두스가 문헌학과 인문학을 유럽에 확산시켰다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프로젝트는 서양 고전과 서양 인문학 텍스트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만들자는 선언이었다. 이런 정신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대표적으로 '페르세우스' 전자도서관이다(참조: [www.perseus.tufts.edu](http://www.perseus.tufts.edu)). 페르세우스 전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서양 고전과 관련된 모든 텍스트가

전산화되어 미국 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무료로 원전 텍스트는 물론 번역과 주해와 2차 연구논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차적으로 디지털 텍스트의 신뢰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료가 많다 해도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자료는 이용되지 않는다. 페르세우스 전자도서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본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전자도서관이 없다. 이런 종류의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본이 마련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예컨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신뢰할 만한 정본 텍스트를 찾기가 어렵다. 이 또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국가가 정보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콘텐츠 자원 확보의 가장 기초단계가 정보 사업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학문의 기초 도구 자원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 정보 작업에는 여러 분야의 학문의 도움이 요청된다. 특히, 비판정보 작업은 서지학·목록학·비문학·문법·운율학·수사학·논리학, 어느 시대에 속하는 작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별 문예 사조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 해당 문헌의 내용에 대한 문해 능력, 고대세계와 관련한 역사 지식 일반이 있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양고전학의 경우 보조 학문(문헌학의 기초학문들, 그리스어문법, 라틴어 문법, 수사학, 근동고대사, 그리스사, 로마사, 그리스의 국가이론, 그리스와 로마의 병법과 전쟁술, 철학사, 수학사, 자연과학사, 고고학, 그리스문학사, 라틴문학사, 중세라틴문학사, 고대법학사, 비잔티움 연구서 등)도 함께 발전했다. 어쩌면 한국 인문학이 수입인문학일 수밖에 없는 것도 소위 '공구학'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일 것이다. 이도 실은 정보 작업과 직결된 문제이다.

## V. 맺음말

한마디로 정보 사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판본의 연구 방법, 표준 정본의 체계, 텍스트의 표현 형식이 서양의 그것과 꼭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서양의 고전 정보 사업이 지금도 서양의 정신과 문화의 끊임없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 자원과 텍스트 자원이야 말로 무형 자원 확보의 지름길이고, 그 가장 안전한 통로가 정보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하게 된 것도 실은 유형의 천연 자원 덕분이 아니라, 무형의 정신 자원 덕분일 것이다. 그런데 언어 자원의 관리 문제는 이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것이기에 중요하다. 이는 단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시급한 문제다. 당장, 100년 전의 한자와 한글, 50년 전의 일본어와 한글, 지금의 영어와 한글을 비교해보라. 지금의 한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보라. 어떤 문제 때문에 한글의 경쟁력이 없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한글 텍스트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보가 없다는 소리다.

이제부터는 언어의 경쟁력이 곧 국력의 경쟁력이다. 물론 국력의 크기가 언어의 경쟁력을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몽골 제국을 보면 된다. 물리적인 힘이 곧 언어의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은 규모와 위상 면에서 볼 때 이제 더이상 변두리 국가가 아니다.

요즘 '강소국'이라는 표현이 유행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일 것이다. 이전까지는 베끼고 모방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독자적으로 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글은 아직은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은 '단어가 부족하고 표현 방식이 부실해서'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소위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해서'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요컨대 고려의 팔만대장경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이 남긴 수많은 문헌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문헌국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통의 단절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옛날 문헌들은 현재의 지식 소통 형식과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옛날을 보존하는 동시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소리다. 이 현대화 과정이 정보 작업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보 작업은 매우 시급한 국가 사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문제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있는 기관

내지 연구자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정보  
작업 일반에 대한 전수 작업이 요청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정보 작업을 위한 ‘국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계의 중론<sup>14)</sup>이 모아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14) 이와 관련해서는, 『라틴어 대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이  
다. 『라틴어 대사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안재원, 「라틴어 대사전에 대하여」, 『서  
양고전학연구』 제25집(2006), 359-315쪽 참조.

## 참 고 문 헌

### 1. 일차 자료

광문회본.

승실대본.

『남원고사(南原古詞)』.

『東國山水錄』(규 11638).

『춘향전』.

『택리지(擇里志)』.

김동욱 소장 49장본 『춘향전』.

김소희 창본 『춘향가』.

동양문고본 『춘향전』.

보급서관본 활자본 『옥중화』.

신문관본 활자본 고본 『춘향전』.

신재효 동창 『춘향가』(가람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35장본 『춘향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59장본 『춘향전』.

『대정신수대장경』.

『序聽迷詩所經一卷』.

『一神論』.

羅香林, 『唐元二代之景教』. 中國學社, 1966.

穆爾, 『一五五〇年前的中國基督教史』. 郝鎮華譯, 中華書局, 1984.

裴志軍, 『唐代景教文獻詞語研究』. 湖南人民, 2009.

翁紹軍, 『漢語景教文獻詮釋』.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6.

佐伯好郎, 『景教の研究』.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1935.

Gunner Mikkesen, *A Study of the History of Nestorian Christianity and Its Literature in Chinese: Together with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Dunhung Nestorian Documents*(Peter Lang, 2004). in: *Project Muse14*, Review, 2007, p. 233.

Saeki, P. Y., *The Nestorian Documents and Relics in China*. Tokyo: The Maruzen Co., 1937; 2nd ed., 1951.

www.perseus.tufts.edu

## 2. 이차 문헌

안재원, 『라틴어 대사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라틴어 대사전에 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25집, 359-315쪽.

\_\_\_\_\_, 「서양고전문헌학의 방법론: 문헌 계보도, 편집, 번역, 주해」, 『규장각』 제32집, 2008, 257-282쪽.

Ax, W., “Quadripertita Ratio: Bemerkungen zur Geschichte eines aktuellen Kategoriensystems.” in: *Historiographia Linguistica* 13(1986), pp. 191-214.

Birt, Th., *Das antike Buchwesen in seinem Verhaeltniszur Literatur*. Berlin, 1882(ND 1959).

Boeckh, A., *Enzyklopaedie und Methodenlehre der philologischen Wissenschaften*. (herg.) E. Bratauscheck Leipzig, 1881(ND Darmstadt, 1966).

Bretholz, B., *Lateinische Palaeographie*. (2. Aufl.) Leipzig-Berlin, 1912.

Canter, W., *De ratione emendandi Graecos auctores syntagma*. 1566.

Fraenkel, H., *Apollonius Rhodius, Argonautica*. Oxford, 1961.

Hagedorn, D., “Papyrologie.” in: *Einleitung in die Griechische Philologie*, (herg.) H-G. Nesselrath Stuttgart und Leipzig, 1997.

Harlfinger, D., (herg.), *Griechische Kodikologie und Textueberlieferung*. Darmstadt, 1980.

Hunger, H., “Antikes und Mittelalterliches Buch- und Schriftwesen.” in: *Die Textueberlieferung der antiken Literatur und der Bibel*, dtv Muenchen, 1975, pp. 25-146.

\_\_\_\_\_, “Griechische Palaeographie.” I : *Das Buchwesen im Altertum und im Byzantinischen Mittelalter*. Leipzig(2), 1911(ND 1977).

Jaeger, G., *Einfuehrung in die Klassische Philologie*. Muenchen, 1975.

Maas, P., *Textkritik*. 1927.

Pasquali, G., *Storia della tradizione e critica del testo*. (2. Aufl.) Florenz, 1952.

Pfeiffer, R., *Callimachus*. Oxford, 1950/1952.

\_\_\_\_\_, *Die Klassische Philologie von Petrarca bis Mommsen*. Muenchen,

- 1976; 『서양 인문 정신의 역사』, 정기문 옮김(안재원 해제), 도서출판 길, 2011.
- Poehlmann, E., *Einfuehrung in die Ueberlieferungsgeschichte und in die Textkritik der antiken Literatur*, Darmstadt, 1994.
- Reynolds, L. D. & Wilson, N. G., *Scribes and Scholars: A Guide to the Transmission of Greek & Latin Literature*, Oxford, 1968(rep.) 1991.
- Robertello, F., *De arte sive ratione corrigendi antiquorum libros disputatio*, 1557.
- Solmsen, F., *Hediosi Theogonia, Opera et Dies...*, Oxford, 1970.
- Timpanaro, S., *Die Entstehung der Lachmannschen Methode*, (2. Aufl.), Hamburg, 1971.
- Weinberger, W., *Wegweiser durch die Sammlungen altphilologischer Handschriften*, Sitz., Berlin-Wien, 1930.
- West, M. L., *Text Criticism and Editorial Technique*, Stuttgart, 1973.

## 국 문 요약

이 글은 한국학 고전의 정본 사업과 관련해서, 정본의 중요성과 정본 사업의 시급함을 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서양고전문헌학의 사례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세 가지 사례, 즉 ① 대표적인 한국 고전인 『춘향전』, ② 돈황학의 문헌들, ③ 이중환의 『택리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가 정본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정본 사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더 이상은 미뤄두어서는 안 되는 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요즘 한국 고전은 물론 동양 고전학계에서도 원전 복원과 고전 번역 및 주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참조 사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글이 서양고전문헌학의 방법론과 동양고전학 및 한국고전학의 방법론의 비교를 촉진하는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투고일 2012. 6. 2.

수정일 2012. 8. 2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판본 비교(Collation of codices), 비판정본(critical edition), 고전(classics), 한국학(Korean Studies), 서양고전문헌학(Classical scholarship)

